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opia.com/mem/ha nmaum

# 내가 세상에 나왔으니 모든 게 내탓일 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점안식을 하고 지원을 설립했는데 이는 여러분의 돈독한 신심이 합쳐져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원은 누구의 집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공부하는 자입니다. 오늘은 점안식을 한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부처님을 모셔놓고 절을 하고 물을 떠놓고 초를 켜놓고 향을 피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체 보살들도 같이 할 수가 없고, 구경 천에서도 같이 할 수가 없고, 도리천에서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함이 없이 동시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컴퓨터 많이 쓰시죠. 그럼 그 절로 비유하자.

우리가 부처님을 모셔놓고 거기다가 모든 입력된 마음을 합류화 시켜도, 만약에 영이 수천 수만이라도 내 영에다가 한데 합치면 영이지 합친 사이가 없습니다. 물질이라면 그렇지만 마음은체가 없으니까요. 수십만 명을 넣어도 넣은 사이가 없다는 얘기도. 그래서 부처님한테 입력을 해놓으면 부처님께서는 일일이 관찰하시고 용도에 따라서 모든 응신으로서 응해주시죠.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이니까 보살을 내보내서 병이 있으면 약사가 돼주시고, 죽어서 좋은 데로 못가는 사람에게는 지장이 돼주시고,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칠성이 돼주시고, 물에 가서 빠는 사람한테는 주해신이 돼주시고, 산에 간 사람을 염원하면 주산신이 돼주시고, 이렇게 무엇이 이루어 주십니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보고 저 사람 볼 때 벌써 나쁜입니다. 화한다 이겁니다. 화해서 나쁘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나누는 방법은 모두에게 똑같은 자체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화하시고 그렇게 무상하시며 묘법으로써 여러분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은 어떠한 일에도 열계성이나 유전성이나 업보성이나 인과성, 세균성 이런 것이 약하게 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묘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법당에 들어가면 부처님 모습이 내 모습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부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 생각하고 들이 아니게끔 마음을 동글려서 절을 한다면 일체를 한다 하더라도 전배 올린 것만 못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의 머리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라서 뒤쳐지는 사람이 있고 너무 게을러서 뒤쳐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게 부처님 법 따로 있고 우리가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법이 우리들의 법이고 우리들의 법이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생활 속에서 그대로 부처님을 숭상하신다면 깨우칠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깨우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지금도



그림·최주현

## 상대에 맞춰 대해주면 너·나 없어 그대로 화목 부처님 법 우리네 법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과거 자들이 현재 자기를 이끌어 가고 있어요. 종자가 없다면 지금 아무 것도 없을 겁니다. 종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체를 먹고 쓰고 살고 이리죠. 나무들을 보십시오. 뿌리없는 나무가 있는가, 여러분도 종자가 없다면 뿌리가 없고 뿌리가 없다면 싹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싹인 것입니다. 싹은 자기 뿌리를 의지하고 믿어야 되지만 나무의 이름과 형상을 의지하고서 거기서 뭘 달라고 하니 그게 됩니까. 첫째 벌써 통하지를 양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같이 사는데도 모두 내 탓으로 돌리지는 않고, 자식의 탓으로 남편의 탓으로 부인의 탓으로 부모의 탓으로 이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싸우니 그 가정은 벌어지는 겁니다. 자꾸 싸우고 그렇게 되면 돈도 속 들여다보고

그 집에는 들어가지지 않아요. 집 안에 들어가면 찢기고 그럴 거니까 난 들어가 싫다 이런 뜻이죠. 돈이라고 해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체 만물이 다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만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뿐입니다. 이 꽃 한송이도 내가 예뻐하면 나에게 적응을 하고 내가 미워하면 이걸 적응을 안합니다. 여러분이 또 이웃에서 살아도 내가 속에 미운 생각이 통쳐 있으면 그 쪽에서도 잘 응해주지 않습니다. 그쪽에서도 미운 생각에 막아지니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내 탓으로 생각하라 하는 것은 뭘 때문에 그런 거냐.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지, 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상대가 없을 것 아닙니까. 세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러면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 아니겠습니까? 더군

다나 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다는 것, 그걸 한번 계산 잘 해보십시오.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남편이나 자식이나 나가서 어떤 불편한 일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럽게 행동해주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누구인가 따듯한 데로 고이게 마련이고 시원한 데로 고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기 잣대로만 재고 자기 생각으로 재서 말을 하려고 하니 이거는 씨가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크면 큰 대로 대해주고 작으면 작은 대로 대해주면 그대로 통글어지죠. 너 나 따로 없이 말입니다. 그러면 화목해지고 가정에 이혼율도 적어지고 또 자식하고 멀어질 일도 없어요. 가정이 화목해지면 사회가 화목해지고, 사회가 화목해지면 나라가 화목해지고, 이 세상 모두가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많아서 마음없는 게 마

음이며, 부처가 너무 많아서 부처는 없는 것이 부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부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될 가능성을 99% 가졌다고 합시다. 그럼 부처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사람이 부처가 됐을 때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또 부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을 건질 때에 내가 건졌다고 하겠습니까? 이제 부처님 일은 떠나서 한번 여러분의 얘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말합니다. 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것을 봤을 때 그것만 보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만 만나고 있었습니까? 어디를 갔을 때 거기만 가고 있었습니까? 이 모두가 듣고 보고 가고 오고 만나고 하는 것이 전부다 다 공했어. 할 나할나 이것 보면 저걸 봐야 하고 이것 보면 저걸 들어야 하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야 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 되려면 형이 돼야 하고, 형님 하면 형님이 돼야 하고, 여보 하면 남편이 돼야 하고 이거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수시로 바뀌는데 만약에 내가 형님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됐을 때 내가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나 할나 바뀌어서 어떤 거 봤을 때 나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부처예요. 어떤 것이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부처란 말입니다. 마음도 어떤 마음을 썼을 때 내가 썼다고 할 수 없으니 마음도 너무 많아서 마음이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시시각각으로 화해서 변하고 돌아가니까 어떤 마음을 썼을 때 내가 썼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음이 천차만별로 화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모두가 공했구나,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때에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은 없는 게 마음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닦아오는 대로 천차만별로 마음을 쓰는 데 인간은 고등동물이어서 나쁜 거 좋은 거를 잘 알고 있으니 좋게 마음을 쓰라는 겁니다. 좋게 마음을 쓰되 전지에 살아 내려오던 습관대로 하지 말고 시대가 변하는 대로 좀더 한생각으로 바로 들어가라는 거죠. 감수성이 빠르고 상상력이 빠르고 지혜가 빠르면 그냥 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전에 있는 원시입니다. 원시! 수·상·행·식·원식. 이것이 바로 한데 합쳐서 내가 생활하는 것이 바로 부처의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년·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자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역의 물음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익인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년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속의 불교 206

## 뿌리가 싱싱하면 잎은 절로 푸르르다

믿음은 불가사의한 힘을 갖고 있다.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완전한 믿음은 그 어려움의 얽힌 실타래를 깨어 풀어 버린다. 믿음은 믿은 만큼 보답한다. 일체를 믿는 이에겐 일체를 주고 절반만 믿는 사람에겐 절반만 준다. 주인공에 대한 절저한 믿음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닦혔다 해서 좌절할 것은 아니다. 믿음이 있는 한 어려움을 준 거기에서 풀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것. 그러므로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 믿음의 크기 만큼 본래 부처로서의 광명이 우리의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게 된다. 그 광명 앞에는 어떤 어둠도 당해 내지 못한다. 온갖 두려움과 욕심, 어리석음이 일시에 사라질 것이다. "당장 급한데 어떻게 주인공을 믿고 전부 맡기라 하는가?" 하는 말을 하지 말라. 뿌리가 싱싱하면 가지와 잎이 절로 푸르르니 색을 일도 없게 된다.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공덕의 탑을 쌓

고 믿음은 결코 시들지 않는 지혜의 나무를 자라게 한다. 주인공에게 믿고 맡길 때 주인공의 응답이 온다. 뒷전에 물러앉아 있던 주인공이 전면으로 나서게 된다. 주인공은 결코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다. 진실하게 믿고 물러서지 않을 때 비로소 해결하면서, 체험하면서, 감흥을 맞출 수 있게 된다. '아! 내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단호하게 귀고 들어와 맛을 보고 감흥이 되고 마침내 참 나가 드러나게 된다. 참 나가 드러나 부자 상봉이 이뤄지면 부와 자가 더불어 자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주인공을 진실하게 믿고 그 자리에 일임하게 되면 왜 모든 일이 잘 풀리는가? 그것은 근본 자리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나와서 유위의 법을 어루만져 주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때때로 다보 여래가 되기도 하고, 지장 보살이 되기도 하며, 관세음 보살·문수 보살·보현 보살이 되기도 한다. 또 신장이 되기도 한다. 주인공은 무엇이든 아니되는 게 없으니 주인공 자리는



본래 공한 것이지만 그러한 표범이 있다. 그러므로 일체를 주인공에 맡기고 놓는다면 주변이 화락해질 것이다.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 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치라고 굳게 믿었을 때, 에너지는 속사포같이 한창나게 전달이 된다. 또 그런 믿음으로 주인공을 부르면 우주 전체가 한꺼번에 듣는다. 주인공밖에 할 수 없다고 믿어 진실로써 맡겨 놓는다면 믿고 맡기는 순간 마치 전등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이 모든 게 밝아진다. 나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내 가정, 내 사회, 내 국가, 이 세상이 다 밝아지게 되어 있다. 고로 믿고 맡기느냐 않느냐의 한생각에서 전지가 벌어진다. 한생각 잘하면 무량의 밝은 빛을 낼 수 있을 것이고 한생각 잘못하면 무량의 어둠을 뒤집어 쓰게 된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본래로 죄가 없기에 죄 붙을 자리 또한 없으나 한생각 잘못 일으켜 어둠에 빠져 든다는 뜻이다. 한마음 자리에 대한 굳은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준다. 우리가 절

어지고 있는 수억겁 년 이래의 업보도 그 행복한 마음 앞에서는 솜처럼 가볍다. 왜냐하면 한마음의 그 무한 광대한 복력에 비추어 볼 때, 중생이 정전되고 있는 짐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온갖 근심과 번뇌와 경계를 한점 부러 놓는 것과 같다. 믿으면 편안해진다. 나는 본래로 부처라, 죄업에 물들지 않고 인과에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 대광명의 존재임을 알아서 자신의 근본 마음에 귀의한다면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놀듯 편안해진다. 나는 진리의 바다를 자재로이 해엄쳐 다니는 물고기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게 된다 해도 여한이 없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했다면 생활 속에 어찌 잡다한 분란이나 걱정이 있겠는가. 믿음이 자라면 즐거움이 나오고, 그 즐거움 속에는 죽음이 목숨이 닦쳐도 대면자약할 만큼의 진실이 자리잡는다. 생활 속에서 마음의 힘을 체험해 보라. 믿음은 더욱 커질 것이다.

협찬: 한 마음